

BK21 科技부문 서울대 12개 분야 독점 연대 2개, 고대 1개 분야만 선정

서울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핵심인 과학기술분야 세계 수준 대학원 육성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12개 전부분에서 선정돼 기존의 학부중심에서 대학원중심 대학원으로 재편된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7개 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해 6개 분야, 포항공대도 6개 분야에 신청해 4개 분야에서 세계수준 대학원 육성사업 주관 및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BK21 사업 기회조정 위원회는 최근 앞으로 7년동안 총 1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BK21 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83개 대학 4백43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다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단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마다 9백억원 씩 7년동안 6천3백억원이 지원되는 과학기술 세계수준 대학원 육성사업에는 서울대가 정보기술, 의(치·약)생명, 농생명 등 교육부가 지정한 9개 분야와 추가신청한 수학, 지구과학, 건설기술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KAIST는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정보기술, 생물, 기계, 재료 등 6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됐고 포항공대도 정보기술, 생물, 기계 등 3개 분야에서 주관대학으로 신청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반면 연세대는 의생명, 물리 등 2개 분야, 고려대는 생명공학 부문에서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는데 그쳤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5백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에서는 대부분 국립대 위주로 선정됐다. 또 전문대학원을 육성하는 특화사업에서는 디자인분야에 경기대, 국민대, 한의학분야에 경희대, 원광대 등 12개 사업단이 선정, 연간 1백50억원씩을 받게 됐다.

“암, 정복하기 위해 암세포 만들었다” 재미교포 윌리엄 韓박사, 위대한 연구업적 MIT대 주임연구원으로 활약

인류 최초로 사람의 암세포를 만들어낸 과학자는 미국

인이 아니라 재미교포 2세인 윌리엄 韓박사(34세)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韓박사는 최근 국내의 한 종합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주임연구원으로 암세포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 암세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지난 8월9일자에서 美MIT대 화이트헤드 생명의학연구소 주임연구원 韓박사의 연구성과를 암 연구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韓박사는 “지금까지 쥐를 대상으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이시키는 방법이 성공했을 뿐이고 사람의 암세포를 만드는 것은 방사선을 쬐다든지 약품처리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이과정을 알 수 없었다”며 유전자 변이를 통해 암세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미교포 2세인 韓박사는 87년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대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수재, 그가 하버드대를 졸업할 당시 발표한 논문은 생화학분야 이 대학 최고의 명예논문으로 선정됐다.

무궁화위성 3호 발사 성공 10월 23일쯤 정지궤도 안착

우리나라 세번째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가 지난 9월 5일 오전 7시 34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위성발사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국통신은 무궁화위성 3호가 유럽연합(EU)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Ⅳ 로켓에 실려 적도상공 3만6천km 정지궤도를 향해 발사된 뒤 7시59분쯤 미국 괌에 위치한 위성관제소와 첫 교신을 통해 정상적으로 타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위성 3호는 타원형 궤도를 돌다가 엔진을 이용, 세차레 궤도를 상승해 발사 4일후 정지궤도에 진입하고 오는 10월23일쯤 목표 위치인 적도상공 3만6천km의 동경 116도 궤도에 안착하게 된다. 무궁화위성 3호는 서비스 지역이 한반도로 제한된 1, 2호와는 달리 동남아시아 전체에 내년 1월부터 15년간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궁화위성 3호는 연료를 포함한 중량이 2천8백kg, 길이 19.2m로 총 33개의 중계기를 갖고 있는 최첨단 대형 통신, 방송위성으로 위성방송 채널을 최대 1백68개까지 늘릴 수 있다.

냉동卵수정아기 국내 첫 탄생 차병원 尹泰基박사팀 개가

국내 최초로 냉동난자로 인공수정된 아기가 태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경여성은 물론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이 상실된 여성도 임신이 가능하게 됐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尹泰基교수팀은 지난해 11월 金모(30세)씨의 자궁에 냉동난자를 인공수정시킨 수정란을 이식, 정상적인 임신과정을 거쳐, 최근 2.9kg의 건강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尹교수는 아기는 유전자 검사와 기형아 검사 등 정밀産前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냉동난자 아기는 8명이 보고되고 있으나 동양에선 최초라는게 차병원측 설명이다.

北核탐지관측소 국내 첫 설치 한국자원연구소, 강원지역에

북한의 핵폭탄 및 고성능 폭탄개발 등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관측소가 국내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자원연구소는 최근 미국 남 감리대학교와 공동으로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강원지역에 대규모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을 연구하기 위한 음파관측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음파관측소는 4개의 초저주파 관측장비를 약 1km 간격을 두고 삼각형 형태로 설치한 것으로 반경 1,000km 내외의 대규모 폭발음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에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핵폭탄과 고성능 폭탄실험

을 감시할 수 있다. 또 관측장비에는 지진계와 기압계도 부착, 남북한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창립 초대 이사장에 李基俊 서울대 총장

국내 공학교육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전형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이빅) 창립식이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민간 차원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1년동안 준비끝에 만든 공학교육인증원은 각 공과대학들이 최소 수준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은 70년 전부터 이를 운영해 왔다.

공학교육인증원은 2000년 시범평가에 이어 2001년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나설 계획. 앞으로 국내 공과대학은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여부에 따라 그 대학의 실력이 판가름나게 되고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은 취업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초대 이사장에는 서울대 李基俊총장, 인증원장은 金雨植 연세대부총장, 인증평가 단장에는 광운대 洪義錫 대학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대 출신 朴弘根박사 32살에 하버드대 교수로

올해 32세의 서울대 화학과 출신 朴弘根박사가 올 가을학기부터 미국 하버드대 조교수로 강단에 서게 됐다. 국내에서 학부를 나와 30대에 하버드대 강단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 朴교수는 서울대학교 졸업때 평점 4.3 만점에 4.22의 뛰어난 성적으로 전체 수석졸업을 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로 유학, 4년만에 박사학위를 딴 수재. ①

崔先錄 (전 서울신문 부국장)